

언론동향(12. 7.)

《언론보도 목차》

1. 연천군, DMZ 이야기를 품은 마을박물관 개관식(기호일보) 2
2.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조성사업’ 정부예산 반영(위클리오늘) ... 3
3. DMZ 국제두루미센터, 개관과 함께 관광객 위한 친환경 전기버스 준비(시사매거진) .. 4

연천군, DMZ 이야기를 품은 마을박물관 개관식

✎ 정동신 기자 | © 입력 2021.12.07 | □ 9면 | 🔍 댓글 0



연천군은 지난 5일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연천읍 신망리에 위치한 옛 경원선 간이역에서 김광철 군수 및 문화재단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DMZ 이야기를 품은 마을박물관 개관식을 열었다.



지난해 경기문화재단 에코뮤지엄 사업 일환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 대표적 수복마을인 신망리의 주민 이야기를 재조명하기 시작, 올해 군이 코레일과 신망리역 임대계약을 통해 마을박물관의 거점을 조성했다.

개관 전시에는 한국전쟁 이후 신망리에 다시 마을이 형성되기까지의 역사와 주민 삶의 이야기가 사진·그림 등으로 전시됐다. 또한 DMZ 관광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신망리역을 중심으로 이 마을 일대를 투어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 중이다.

신망리역은 1954년 미군이 전쟁 피란민들을 위해 세운 정착촌으로 뉴 호프 타운(New Hope Town)이라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현재는 동두천~연천 구간 경원선 전철 연장공사로 기차 운행이 중단돼 대체 버스가 운행 중이다.

이용만 관계부서장은 '신망리와 같이 연천군 DMZ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해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연천의 DMZ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이를 통해 연천 DMZ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조성사업' 정부예산 반영

황규영 기자 | 입력 2021.12.06 15:47 | 댓글 0



DMZ의 생태.문화.평화의 가치, 기록.연구.전시



▲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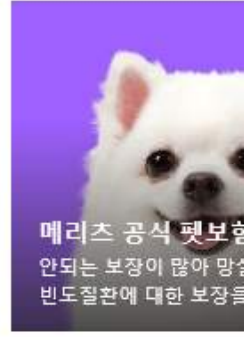
[강원 위클리오늘=황규영 기자]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협정에 의해 추진된 화살머리고지 남북 공동 유해발굴의 평화적 의미를 계승하고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조성사업'이 2022년도 정부예산(통일부)에 반영됐다.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은 철원을 산명리·백마고지 전적비인근에 건립될 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3층에 연면적 6,647㎡로 총사업비는 283억이며, 추모공간과 전시실, 아카이브실, 학예실과 수장고 등의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철원군에서는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연구를 실시했으며,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통일부, 기재부 등을 지속 방문해 건의했다.

철원군에서는 현재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중 공립박물관 설립 사전평가와 중앙투자심사,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을 거쳐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현중 철원군수는 "DMZ의 생태문화평화의 가치를 기록·연구·전시하여 평화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념관으로 의미 있고, 경쟁력 있는 기념관으로 조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신뉴스

- 부산시, 불법 이륜차 법규위
- 부산시, 부울경 초광역협력
- 부산시, 대학생 소상공인 서
- 부산시, 시민과 함께 제1호
- 부산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8

parsle

일래이 바이직 레깅스...
₩49,900
제품보기 >

1+1

포토뉴스



DMZ 국제두루미센터, 개관과 함께 관광객 위한 친환경 전기버스 준비

임연지 기자 | © 입력 2021.12.06 09:00 | 댓글 0

인쇄 | 0 | 0 | 0

인쇄



[시사매거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DMZ두루미평화타운 내에 조성된 '국제 두루미센터'를 개관한 가운데 이용객들의 이동을 도울 차량으로 친환경 전기관광 버스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두루미 센터는 총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DMZ두루미평화타운 부지 내 연면적 961㎡(지상 3층, 야외 및 옥상) 규모로 조성됐다. 1층은 전시체험공간과 영상 교육실, 2층은 국제회의장 및 영상회의실, 3층은 방문객 센터 및 다목적공간으로 배치됐으며 옥외 테라스와 화단에는 단정학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했다.

철원군은 두루미 생태를 해치지 않고, 관광객들의 원활한 관람을 위해 18인승 친환경 전기승합차인 이비온 E6를 내방객용 관광버스로 채택했다. 오르막 등판 능력이 강한 이비온 E6 전기승합버스는 두루미 타운 내 화살머리고지, 아이스크림 고지를 원활히 운행하며 넓은 면적의 두루미 센터를 관람하는 방문객들의 발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비온 E6는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스쿨버스, 유치원버스 등의 어린이 동학버스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어린이 동학차량에 알맞은 2점식 어린이 안전벨트와 오토 슬라이딩 도어를 탑재하고 긴 주행거리를 확보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태권도장 등의 학원 운영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최신뉴스

- 이준영, 2021 AAA 시상식 'AAA 베스트 초이스상'...
- 찬주씨 겨울 감성 R&B곡 'ZZ' 발표, 원슈타인 파...
- 와우NFT, K-클래식조직위원회 상호협력 MOU체결
- 워드 코로나 속 꺼지지 않는 공연 열정, '오디오가'...
- 제주도교육청, 2022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공개...

TELUS